

투데이 칼럼

폭염을 이겨내는 우리의 자세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폭염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이제 더 이상 뉴스 속의 먼 환경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폭염은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의 발생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건설 현장, 택배, 환경미화 등 산업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 생명을 걸고 일해야 하는 시간이며,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폭염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시상하부가 고온에 의해 손상되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즉, 몸이 뜨거워져도 땀을 흘리지 못하거나 체온을 낮추는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기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만일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의식장애나 혼수상태에 빠진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에어컨, 선풍기, 찬물 샤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온을 신속하게 낮추고, 몸통의 열이 사지로 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생사를 좌우한다. 이처럼 열사병은 신속한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9월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포함한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건설·조선·식품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이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를 말한다. 즉, 폭염 작업(체감온도 31℃ 이상) 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첫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둘째, 작업 장소에 에어컨이나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을 설치하며, 셋째, 작업 장소 인근에 휴게시설을 마련해 주기적인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에게 냉각 의류나 냉각 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다섯째, 온열질환 의심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전조치 조항에 '폭염·한파로 인해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개정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 또는 한파 속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러한 법 개정의 중요한 의미는,

기존에는 사업주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이제는 이를 명확한 의무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기존의 화학물질 중독 등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작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폭염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해야 하며, 열사병 환자가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폭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이 되었다.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은 단지 권고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의무이다. 따라서, 폭염 대응 수칙의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인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여름철을 대할 때,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노쇼 사기 기승

단체 예약을 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5월 군산의 한 식당 주인은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기 용의자는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 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 주인은 미리 알려준 업체에 술값 1천4백여만 원을 송금한 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파출소로 달려갔다. 경찰관과 함께 상대 계좌에서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지만 허사였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빠르게 출금을 막고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품 대리 구매, 즉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관련법이 정한 지급정지 적용 범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정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면 지급정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피해 상인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상황어. (송금한 지)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라고 하소연 한다.

현재 노쇼 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만 120건 넘게 신고 된 '노쇼 사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북-제주 서예초대작가 교류전

'2025 전북-제주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 교류전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오름 1·2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제주에서 교류전을 가지고 난 후 일 년이 지났다. 서로 다른 지역의 서예인들이 모여 우정을 나누고 각자의 예술적 기량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특히 전북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교장으로 풍부한 서예 전통으로도 유명하다. 참여 작가는 모두 110명이다. 전북에서 84명, 제주에서 26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류전은 두 지역의 서예 작가들이 서로의 서예를 세계를 존중하고 교류하는 귀중한 자리였다. 특히 서예와 같은 전통예술은 지역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한글 서예는 역사 문화 국어 실용 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그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저변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박태평 전북 회장은 "이번 전시가 두 지역의 작가들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예문화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훈 제주 회장은 "이번 교류전을 통해 소중한 만남을 기대하며 서로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붓 끝에 담긴 정신과 손끝에 스민 시간들이 전시를 통해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가 예술의 향기를 통해 삶의 여유와 풍요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공습 피해 입은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



맥사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에 22일(현지 시간) 이란의 이스파한 핵시설이 미국의 공습으로 파손돼 있다.

백악관 앞에서 '이란 전쟁 반대' 외치는 시위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각종 손팻말을 든 시위대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항의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